

‘투명인간’ 노동자의 한숨과 땀방울의 연대기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6411의 목소리 | 창비 | 2만원



지난달 24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일차리튬 전지 업체 아리셀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사망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참사 원인으로 사전 안전점검 및 교육 미이행, 리튬 배터리 전용 특수 소화기 미구비,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이 꼽힌다. 현재 사측은 외국인 사망자의 경우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에 따라 배상액을 차등 산정해 유족들에게 배상액을 제한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한 통상적인 위자료 수준,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등도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희생자에 대한 배상을 국적이거나 비자 종류 구분 없이 평등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과연 그들은 ‘얼마짜리’ 노동자였을까?

웹툰작가. 물류센터 직원, 도축검사원, 번역가. 대리운전기사, 사회복지사, 전업주부, 예능작가, 헤어디자이너, 농부, 건설노동... 각자의 노동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이들. 전국 방방곡곡 다양한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일흔다섯명의 노동자가 자신에게 익숙한 도구를 잠시 놓



지난 2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마련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시**

고 펜을 들었다. 그리고 각자가 일하며 겪은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어떤 리얼리즘 소설보다 리얼하고, 어떤 시집보다 감동적이며, 어떤 에세이집보다 반짝이는 언어로 가득한 책 『나는 얼마짜리입니까』로 묶였다.

한편당 A4용지 한장 분량의 짧은 글이

지만 그 안에 담긴 내밀한 사연들은 오래 시선을 붙든다. 화려하거나 미끈한 문장으로 포장되지는 않았지만 페이지를 가득 채운 진심과 진실은 곧바로 감전되듯 와닿는데, 그러면서 독자들은 순식간에 겪어보지 못한 삶의 현장을 체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경험을 통해 독자들은 평소엔 무시코 지나쳐온 일하는 얼굴들을 떠올리게 되며 그들이 어떤 기분으로 일터에 나가서 어떤 순간에 웃고 우는지를 짐작해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곧 나의 얼굴, 내가 사랑하는 이의 얼굴과 다르지 않음을 자연스럽게 깨닫는

다. 이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공생’의 실감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모두가 이 사회를 떠받치고 살아가며, 또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공존의 마음가짐으로 우리를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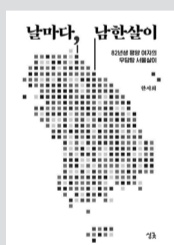
이 책은 노회찬재단의 기획으로 시작되었다. 노동자가 직접 쓴 글을 받아 ‘6411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2022년 5월부터 한겨레에 연재를 시작했다. 억울한 사연, 힘을 보태 달라는 호소문, 위트 있는 일화, 따뜻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 등 저마다 다른 얼굴을 지닌 목소리가 지면을 통해 사회에 발신되었다. 여태껏 한 번도 사회적 발언권을 지녀보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였다.

“6411번 버스를 아십니까?” 우리가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오고 있으며, 한국사회가 그 노동자에 의해 지탱되고 있음을 알린 고노회찬 의원의 명언설이다. 그 연설 이후 6411번 버스는 소외된 노동계층을 대표하는 고유 명사가 되었다. 이 책의 저자명이 6411의 목소리인 것은 그러한 이유다.

수룩된 글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쓰였지만 모두를 한곳으로 이끈다. 바로 더 나은 세상이다. 여태껏 듣지 못했던, 존재하는 줄 몰랐던, 혹은 애써 외면해온 목소리들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한발짝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한다. ‘나는 얼마짜리입니까’라는 책 제목은 자본이라는 가치에 매몰된 세상을 향한 모두의 질문이자 경고이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가족 전체 탈북 후 날마다 좌충우돌 남한살이 중

날마다, 남한살이
한서희 | 싱긋 | 1만2800원



태어나보니 북한이었다. 불행 중 다행이었을까. 저자 한서희의 아버지는 간부, 어머니는 인민반장이어서 밥을 굶지는 않았다. 그저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피아노면 피아노, 노래면 노래 등 배우려면 배우고, 외우려면 외우면서 자랐다. 남한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라고 세뇌 당했지만 몰래 보는 남한의 드라마는 너무 재미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지 한 통만 남기고 오빠가 사라졌다. 사랑과 자유를 찾아 떠난 것이다. 사실 탈북한 가족은 오빠가 처음이 아니었다. 이모들과 외할머니가 먼저 한국으로 떠났다. 오빠가 떠난 이상 남은 가족이 북한에서 계속 이전처럼 살기는 어려워졌다. ‘우리도 가자!’

2007년, 그렇게 운명처럼 떠나와 정착한 서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누구든 일하는 만큼 돈을 버는 사회지만 북한민(北鄉民) 또는 탈북민에게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과 기회 자체가 적다. 그렇다 보니 진입 장벽이 낮은 일을 하다보면 몸과 마음이 너무 피폐해지고, 고단해진다. 한국인이나 일찍 한국 사회에서 자리 잡은 다른 사람들과 격차도 점점 벌어져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기도 하고...

“북한 사람들은 그냥 좀 무서워” 한

서희 씨, 한글 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무시코 던지는 이런 말들에 저자는 슬하게 상처를 받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당시 탈북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은 딱 그 정도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텅빈 집을 중고 가전으로 채워준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밥 벗고 일자리를 구해준 고마운 분들 덕분에 저자는 조금씩 한국 사회에 스며들어가 갔다.

북한 관련 콘텐츠를 예능으로 접근한 장수 TV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첫회 출연자, 북한의 김태희, 성악하는 탈북민으로 널리 알려진 저자는 정작 초기만 해도 방송 섭외 요청을 다 거절했다. 하지만 점차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인권 탄압이 심한 북한의 실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앞으로 한국에 와서 정착할 탈북민을 위해서라도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좀 바꾸고 싶었다. 저자는 용기를 내어 통일 안보 강사로 활동하면서 마이크를 잡기 시작했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아침마당>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카메라 앞에 서기 시작했다.

이 책에는 북한과 한국에서 각각 인생의 절반을 보낸 저자의 생생한 경험담, 긴박했던 탈북 과정, 부모님과 함께 서울 생활에 적응하기까지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또한 저자는 가정을 꾸리고 방송인으로, 워킹맘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점들, 나아가 통일 이후를 생각하는 마음도 책 속에 담았다.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남한살이, 서울살이를 즐기고 있는 저자의 일상 속으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도선인 기자**

소년재판과 위기 청소년을 바라보는 16개 시선

네 곁에 있어 줄게
류기인 외 15인 | 온기담북 | 1만8000원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류기인 부장판사는 1년간의 소년부 업무를 마칠 즈음, 소년 재판 및 보호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관심과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품게 되었다. 소년 재판 담당 법관으로서 비행 청소년에 관한 우리 사회의 선입견과 편견이 생각보다 크고 깊은 현실에서, 한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온 마음이 나서야 한다는 마

음으로 소년사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줄 책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제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이런 가정에서 생활하게 만든 엄마, 아빠가 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양육하지도 않는 부모는 아무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제가 별을 받아야 해요?”

수시로 소년재판을 받다가 결국 소년원 처분을 받게 된 아이가 항변하는 이 말을 철딱서니의 단순한 원망으로 듣고 지나칠 수는 없다. 어떤 아이라도 폭력과 학대, 무관심과 방임, 외로움과 두려움, 배고픔 가운데서 성장기를 보내고 있다면, 이는 명백히 어른들의 책임이다. 그런 성장 환경을 스스로 선택할 아이는 없기 때문이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문제가 생기면 근본 원인을 살피고 성찰하기보다는 문제가 된 사안 자체를 하나씩 가능한 빨리 제거하거나 수습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격리와 배제로 담장이나 격실에 철통같이 가두는 방안이 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이유다. 이런 접근으로는 결국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악화하여 악순환의 무한반복에 갇히고 만다. 소속 기관과 업무, 삶의 배경이 저마다 다른 열여섯 저자들이 일관되게 ‘비행 청소년을 우리 곁에서 단호히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이유다. 저자들은 우리의 곁을 내주고 우리가 곁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도선인 기자**

너와 나의 노이즈
전여울 | 키다리 | 1만3000원

ASMR에 푹 빠진 중학교 3학년 한정원의 성장을 통해 진정한 화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청소년 소설. 동생의 일탈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게 된 정원은 외로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ASMR에 빠져들게 되고,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한다. 학교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정원에게 담임 선생님은 양로원 봉사 활동을 제안하고, 정원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 SF 동화집 《우리가 다른 우주에서 만나면》과 범죄 예방 동화집 《장난이 아니야》에서 기발한 상상력과 날카로운 시선을 보여준 전여울 작가의 첫 번째 청소년 소설로, 10대 청소년의 성장을 섬세하면서도 힘있게 그렸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디톡스
황병태 | 모아북스 | 2만원

디톡스 전문가로 활동한 저자는 2011년 4월, 혈액암 진단을 받아 암세포가 척추까지 전이되어 4기 말기 상태였으며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극심한 통증 속에서 항암치료를 시작했을 때 나이가 48세. 평소 건강사업을 하던 경험을 살려 디톡스 요법을 하기 시작했다. 그 덕분에 체력이 현저히 회복되어 항암치료를 앞두고 받았고 불과 4개월 만에 6차 치료까지 끝내고 암세포 소멸, 즉 무병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5년이 지나도록 암은 재발하거나 전이될 김새가 전혀 없었고 2016년,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다. 자연치유가 일으킨 기적이라고 했다. 자연치유가 일으킨 기적이라고 했다. 자연치유가 일으킨 기적이라고 했다. 그렇게 그는 현재 디톡스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누워서 골라 먹는 비주류 물리 112
후쿠에 준 외 2인 | 북스힐 | 1만8000원

물리학의 복잡한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어려운 수식을 깊게 파고들기보다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이후까지 확립된 현대 물리학의 전반을 살펴 보면서 다양한 물리학 분야의 기초적인 테마와 흥미로운 이야기를 재미있게 설명하는 책으로, 역학부터 양자역학까지 현대 물리학의 핵심 테마를 포괄한다. 이 책은 어떠한 현상의 특징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 그림을 잘 활용해 물리학적 사고를 이미지로 떠올려서 쉽게 이해하도록 했으며, 전문 용어를 최소화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처음 물리학을 배우는 학생부터, 스스로 물리학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추천한다.

